

존경하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5대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임명받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박범영입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농업 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업의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움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원은 최근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2019년 최우수 기관, 2020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이룬 값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임 기간 탁월한 지도력과 남다른 열정으로 기관 발전을 위해 애쓰신 양창범 전임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사랑하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족 여러분!

우리 축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고 급속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고 시장 개방의 확대, 악성 가축 질병의 빈번한 발생, 축산 종사자의 고령화, 기후변화로 이상 기상현상의 빈번한 발생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까지 더해져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시대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축산기술 혁신을 이끌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그리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축산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저의 재임 기간 다음 네 가지를 중점 추진 하도록 합시다.

첫째,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축산과학원이 됩시다.

축산업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축산 냄새와 빈번한 악성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장의 냄새 원인을 발생 요인별로 규명하고 종합적인 냄새 저감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한편, 악성 가축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면역 및 방어 기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019년 2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기술 개발이 더딘 면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식품과 ICT·IOT 기술을 접목한 관리 용품, 질환 조기진단 기술 등을 하루빨리 실용화하여 관련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나갑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면서 가축의 사육 환경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술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합시다.

둘째, 융·복합 첨단 축산기술을 개발하여 4차 산업화 시대에 기술을 선도합니다.

4차 산업화 시대의 선도 기술인 빅데이터 확보와 활용, 인공지능,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한 융복합형 축산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와 연구원이 생산한 데이터를 수집·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높여 갑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가축 관리 장치를 개발하여 축산 종사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한편, 동물복지, 품질·생산성, 온실가스 저감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스마트팜 운영기술 개발에도 힘써 나갑니다.

동물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 축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기술 개발도 중요합니다. 각막, 체도 등 생산기술을 고도화하여 조기에 임상 적용 기준을 달성합니다.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 시험체 개발과 인공 배양육 생산기술을 확보해 수입 배양육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유통기준 설정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해 활용하고 축산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가축 사양관리 기술개발과 품종 개량 등 축산물 생산에 매진합니다. 또한 우리가 개발한 가축의 산업화 체계를 조기에 확립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냅니다.

셋째, 축산인과 국민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농업인, 생산자 단체, 대학 및 관련 기관·협회 등 이해관계자, 기술 및 정책수요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융·복합 협업과제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데 직원 모두가 힘써 나갑니다.

현장 활용성이 높은 실용화 기술은 산업현장에 정착할 때까지 지속 관리하여야 진정 축산인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맙시다.

넷째,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합시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조직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수 인재 확보에 함께 노력하고 공채 신규 연구사의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합시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과 공동연구 및 협력을 확대해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생동감 있고, 소통과 협력으로 친화적이며,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소통과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축산과학원 가족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실천은 현장을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칠 때

더욱 빛을 받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으로 문제의 답을 찾도록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농업·농촌,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최선을 다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하여 세계 일류의 축산연구기관으로 도약합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국립축산과학원장 박범영